

2021 지구촌 교회

# 가정에 배순서지



예수님  
Loving Jesus,  
사랑,

예수님  
Sharing Jesus!  
사랑!

VOL.5  
2021 03-04

# 범죄한 가인



찬송가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복음성가

지 438장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 0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0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하는 자였더라
- 0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 0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0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0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 0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0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 0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냈고, 형제를 시기하여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짐이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는 하지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당할 형벌과 책망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 앞과 가족들 앞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가인은 결국 근심에 사로잡힌 방랑자가 되고, 땅을 일구어도 노력에 합당한 소출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첫 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고, 사람과 자연 세계의 조화로웠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두려움을 이해하셔서 생명 보호를 약속하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길이 참으셔서 범죄한 가인이 참회하는 삶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2. 성경은 '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가인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을 기다리던 죄는 결국 그를 삼켰고, 오히려 죄에 지배를 당하여 아벨의 소중한 생명을 해쳤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죄의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죄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는 매번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가진 이웃 또는 가족이 있습니까?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시작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복음성가

지 339장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6:5-22

- 0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0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0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 0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0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
-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 14 너는 고펀레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 사람들이 땅 위에 점점 많아졌고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띠크’인데 이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노아도 죄를 지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갈 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 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힘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크기도 너무 컸고, 기술도 부족했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완성하였고 방주 안에 모든 생물이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산위에 배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명령이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순종과 충성을 사용하셔서 홍수의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노아의 방주와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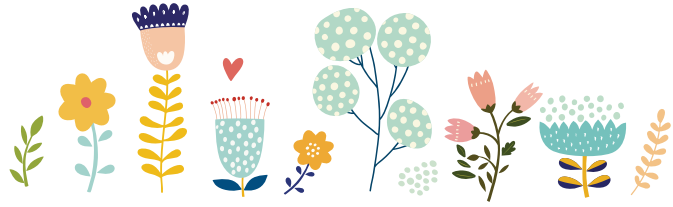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복음성가

지 393장  
창조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7:1-16

- 0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 0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 0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 0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 0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0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 0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 0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 0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 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 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보시고서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1절, 새번역)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만연한 인간의 부패함을 보셨고, 반대로 의로운 사람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오직 의로운 노아와 그의 집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닌 재창조를 위한 심판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을 방주에 태우신 것은 홍수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 최후의 심판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에 대비하는 방법은 오직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주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임을 깨달아,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심판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일상 속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십자가를 지신 예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복음성가

지 465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26-38

-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 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1.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십니다. 심한 고문과 채찍질로 온 몸이 상하셨기에,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이어받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군중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온 몸이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께서 오르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근육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걱정하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시지만, 도리어 나를 위해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2.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습니다. 이 장면을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광야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사탄은 줄곧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능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고 희롱하는 무리를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구원이 공짜여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치를 수 없는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 값으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 하시면서도 그 권능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 등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부활의 주님이 전해주신 것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복음성가

지 218장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11-23

-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 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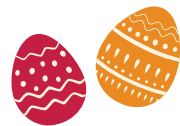


1.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반신반의했고, 험악한 유대인들로 인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꺼내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평강(shalom)을 전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인사말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한 샬롬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결코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냄 같이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낙담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셨듯이 죄 많은 세상, 소망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전하는 일로 세상 속에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냈고,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도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과와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마리아의 찬양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9-56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복음성가

지 200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 39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 41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42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 43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 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 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 56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당시 엘리사벳도 훗날 침례 요한이 되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 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신을 방문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때 '내 주'라는 이 단어는 헬리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 태중의 아이가 메시아 곧 예수님 이심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2. 자신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음을 확신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천하고 연약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리고 연약한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해주실지 기대하며 서로를 축복해주세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요한의 출생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복음성가

지 337장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7-80

- 57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 58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 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 60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 61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 62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 63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 64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 65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 66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 67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 77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 시리로다 하니라
- 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1.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가 드리는 찬양의 핵심은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뿌를 일으키신 일,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엘리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뿌이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또한 삶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아들 얻은 기쁨보다 메시아 주신 것을 더 기뻐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예수님의 탄생



찬송가

123장  
저 들 밖에 한밤중에



복음성가

지 206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20

- 0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0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0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 0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 0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 0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 0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 0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0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 전쟁에서 승리하고 절대권력을 차지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는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는 황제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자신만이 세상의 주인임을 강조하는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히려 이를 예수님의 탄생과 대조적으로 기록합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베들레헴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진정한 구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세상의 물질, 건강, 과학기술, 인간의 이성 등을 앞세워 그것들이 마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계 제일의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로마 황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연약하고 초라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당시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천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목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목자들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달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이 아닌, 작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부름 받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천한 목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뛰어나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닌 연약한 나를 먼저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루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리브가와 같은 아내를 짝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에게 항상 성령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와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주옵소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복을 주시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가장 완벽한 나의 단짝이며 어여쁘고 어여쁜 나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정직하고 신실하며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여호와께서 자녀이름 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이름 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자녀이름 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는 그 얼굴을 자녀이름 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소서!!  
좋은 성품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주소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밀병기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하나님!!  
제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실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가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의 영혼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충만함으로 온전히 세워주소서.  
제게 허락된 삶을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있게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NCC 기도 | 각 가정에서 NCC(for Nation, Church, Corona19)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